

11월의 양돈관리 포인트

-호흡기 질병과 자궁 내막염 근절 대책

해 마다 이 맘 때면 하절기 번식성적 저하의 여파로 11월~12월의 분만복수가 부족한 농장이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임신돈의 구입을 고려하는 농장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돼지의 이동은 곧 계절적으로도 문제시되는 자돈 설사병과 겨울철 호흡기 질병의 발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번호에서는 겨울철에 다발하는 호흡기 질병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대책과 여름철을 지나면서 증가하고 있는 모돈의 자궁 내막염의 근절 대책을 소개하기로 한다.

1. 호흡기 질병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1) 돈군 전체의 항병력을 높여 준다.

- 사료의 증량 급여를 통해 모돈의 바디컨디션이 양호하면 정상적인 생식체중을 갖는 자돈을 얻을 수 있게 되고, 허약으로 인한 자돈 폐사율을 줄일 수 있다.

- 한냉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기능이 저하되므로 돈사 내 적정온도를 유지한다. 특히 신생자돈과 포유자돈 그리고 이유자돈에서의 한냉 스트레

스가 주로 문제되므로 분만사와 이유자돈사에서의 온도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 셋바람을 차단한다. 초당 0.1m의 속도에서 0.6m로 풍속이 증가할 경우 체감온도는 4℃ 저하되는 것과 같다.

〈분만사에서 셋바람으로 부터 자돈을 보호할 수 있는 2중 장치〉

- 1차 : 돈사 외벽, 출입구의 틈새 밀폐
- 2차 : 자돈주변에 보온상자와 같이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바람막이를 설치한다. 또는 자돈의 휴식자리 부근의 분만틀 칸막이를 밀폐시킨다.

- 모돈에 항생제 클리닝을 실시한다. 클리닝 시기는 연 2회 환절기 기본 클리닝을 실시하고 매 분만시, 즉 분만사 입식부터 이유시 까지 꾸준히 예방수준으로 항생제를 첨가한다.

- 신생자돈에 초유를 신속하고도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게 해준다.

- 모돈의 무유증은 자돈의 초유섭취를 제한하므로 무유증 발생을 최소화 한다.

- 기본적인 백신 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한다.

- 돈사 내외부 소독을 규칙적으로 실시 (1일 1회 이상)



이재춘 원장

(한별 피그 클리닉, 한국양돈컨설팅그룹)

2) 호흡기 질병의 예방을 위한 관리 방안

- 정확하고 빠짐없는 백신 접종
- 분무소독의 생활화 (1일 1회 이상)
- 돈사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세밀한 환경 관리

3) 이러한 농장이 호흡기 질병이 많다.

농장을 방문하다 보면 농장마다 시설 및 관리체계가 저마다 다른데 호흡기 질병이 문제되고 있는 농장의 경우 공통적으로 문제되는 관리사항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공통적인 문제점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호흡기 질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예방적인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하는 가를 알 수 있게 된다.

- 소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 백신접종이 부실하다. (백신의 접종시기, 접종방법 그리고 백신의 취급요령 준수)
- 돈사구조 및 운영이 비합리적이다.(연령별 분리 사육, 밀사, 다두사육 관계)
- 돈사내 환경관리가 부실하다. (돈사내 일교차, 온습도 조절, 섯바람 차단, 가스 및 먼지제거와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주기 위한 적절한 환기 등을 들 수 있다)
- 빈돈사(돈방)의 수세, 소독후 입식이 불규칙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계획 출하가 안되고 있다.
- 돼지의 구입시 위생적 측면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 차단방역 개념이 부족하다.

- 경영주 및 관리인의 방역에 대한 의식 결여.
- 항생제의 남용 및 오용
- 노산 비율이 많은 농장
- 번식돈 관리가 부실한 농장
- 정기적인 돈군 모니터링에 관심이 없다.
- 돈군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안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관리에 임한다면 대대적인 시설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돈군의 위생상태를 상당 수준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급성질병이 발생되었을 경우 환돈에게는 근육주사를 실시하고, 동시에 준임상적 감염돈과 정상돈의 처치를 위해 가능하면 주사제와 동일한 약제로 음수 투약 (또는 사료첨가)을 실시한다.

4) 호흡기질병 발생시 종합적인 투약 전략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보통 환돈은 환돈, 준임상 감염돈 그리고 감염이 안된 정상돈의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이 세부류는 각각 다른 치료방법이 필요하다. 즉 환돈은 즉각적인 치료의 개념으로 처치해야 하고, 준임상 감염돈은 환돈으로의 진행과 병원균의 배설을 막아야 하며, 정상돈은 질병의 감염이 안되게끔 예방적인 차원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급성질병이 발생되었을 경우 환돈에게는 근육주사를 실시하고, 동시에 준임상적 감염돈과 정상돈의 처치를 위해 가능하면 주사제와 동일한 약제로 음수 투약 (또는 사료첨가)을 실시한다.

투약방법별 치료기간은 보통 근육주사의 경우 2~7일, 음수투약은 약 7일이며, 사료첨가는 7일~21일 정도가 소요된다.

또하나 투약시 고려해야 할 것은 약제의 육류내 잔류에 대한 문제인데, 부득이 하게 비육돈을 치료하게 될 경우 사용약제의 휴약기간 보다 적



농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궁내막염의 대부분은 분만 그리고 교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수 있는데 주로 질에서 부터의 상행성 감염이 문제가 된다. 모돈의 비뇨생식기관은 질 내부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비뇨기계의 질환 및 자궁내막염, 질염 등은 서로 병원균의 감염을 주고받기가 쉽게 되어 있다.

어도 3배 이상의 휴약기간을 염두에 두고 치료를 해야 한다.

2. 자궁내막염의 근절 방법

여름철에 모돈의 체력저하로 난산이 증가하면서 자궁농 증상도 함께 늘어나는데 한 번 자궁농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하면 경미한 경우 말고는 보통 수개월간 지속된다.

1) 자궁 내막염 발병에 대한 이해

정상적인 돼지의 자궁은 미생물학적으로 무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듯 청정한 지대인 자궁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는 주로 자궁경관이 이완되어 자궁내와 외계가 서로 통하게 되는 때인 분만시와 교배를 하는 발정기로 압축될 수 있다.

따라서 농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궁내막염의 대부분은 분만 그리고 교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수 있는데 주로 질에서 부터의 상행성 감염이 문제가 된다. 모돈의 비뇨생식기관은 질 내

부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비뇨기계의 질환 및 자궁내막염, 질염 등은 서로 병원균의 감염을 주고받기가 쉽게 되어 있다.

또한 질은 외계와 직접 통해있는 부위이므로 각종 병원균들의 온상이 되기 쉽다. 따라서 방광염, 신장염과 같은 비뇨기질환이 있는 경우는 배뇨를 통해 병원균이 배설되어 질내부가 오염이 되므로 분만이나 교배시 열린 경관을 통해 자궁으로 이행할 충분한 가능성을 갖게 된다.

2) 자궁내막염을 일으킬수 있는 원인

- 비뇨기계의 질환
 - * 교배시 요도의 상처 (방광염 및 신장염으로 쉽게 진행 될 수 있다)
 - * 모돈의 음수섭취가 불충분 할 때
- 분만시 또는 교배시 산도의 상처로 인한 염증
- 무리한 조산 및 비위생적인 교배와 미숙한 분만 처치
 - 교배 및 분만 전후로 모돈의 체력저하
 - 병원균 오염이 심한 불결한 돈사환경
 - 옹돈에 비뇨생식기 질환이 있는 경우와 주

기적인 포피 소독 미실시.

- 모돈의 산차 (노산돈에서 발생 비율이 높다)

3) 예방 및 치료

▶ 모돈의 갱신

- 6산 이후에서 임신돈 사고 모돈 도태 (문제 위험이 높은 노산돈 비율을 줄임)
- 자궁농 증상 관련 3회연속 재발돈의 도태 (저수태돈 - Repeat breeder - 의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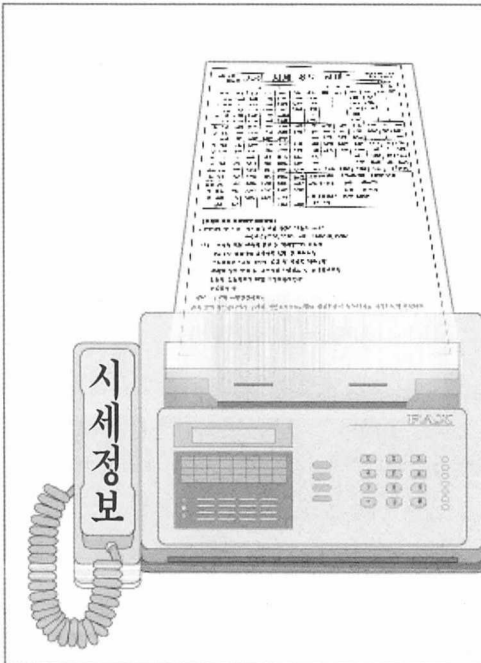
▶ 사양관리 개선

- 농배설 모돈과 웅돈의 사용기록 유지 (저 산차 모돈에 깨끗한 웅돈 사용)
- 문제발생시는 가급적 한 모돈에 한 마리의 웅돈을 사용하거나 인공수정 비율을 높인다.
- 웅돈의 포피 소독 및 웅돈방의 정기적인 소독 (주 1회)
- 임신사의 청소 및 소독 (음부의 접촉이 많은 스톨 바닥을 중점적으로 실시)
- 교배시 관리방법 개선 (인공수정 주입기의 위

- 생적 관리, 교배전 음부 세척, 일회용장갑 착용 등)
- 모돈에 충분한 음수 공급 (물섭취가 부족할 때 비노기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다. 특히 포유돈)
- 분만 전후로 모돈의 체력보강을 위한 관리 (특히 MMA 예방을 위한 관리가 요구 된다)

▶ 약제의 사용

- 비노생식기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광범위 항생제의 투약(클리닝 : 특히 배뇨 말기에 놓이 나오거나 소량의 농이 재발주기에 관계없이 배설되는 모돈이 빈번히 관찰될 경우 실시).
- 농관련 재발인 경우 자궁내에 페니실린 등의 항생제를 주입후 교배시킨다. (주사도 병행하면 효과 좋다)
- 분만유도제 사용비율을 증가시킨다(분만시간 단축 및 자궁내용물의 배출이 원활하여 모돈의 체력소모를 줄이고 감염기회를 줄일수 있다).
- 이유시 페니실린 계통의 항생제 주사
- 감수성 약제로 페니실린 + 스트렙토마이신, 암피실린 그리고 옥시테트라사아클린이 선정됨. **양돈**



팩스 있으십니까?

한 장 받아보시지요.

- ❖ 매일의 전국 양돈 시세와 주요 속보뉴스가!
- ❖ 매일 오후 6시 당신의 팩스로... 대한양돈협회가 만듭니다.
- ❖ 매일 시세알아보는 전화요금보다 저렴한 이용료 (1년에 회원 4만원/비회원 9만원...)

문의처 대한양돈협회 지도부
02) 553-3942/6